

## 21세기를 전망한 학회의 미래구상

대한방사선기술학회장

허 준

16세기 중반에서 17세기에 걸친 변혁기에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유명한 말과 학문의 [대혁명]을 제창한 F.培根(Francis Bacon)은 그의 저서에서 가공의 섬에서 풍요한 미래사회를 구축하고 유토피아를 그리고 있다. 그 중에는 대연구소 「솔로몬 학원」이 있다. 그 연구소의 목적은 「모든 물질의 성립 요인을 구명하고 그 속에 담겨져 범위를 널리 퍼지게 하여 인간의 생활을 물질적으로 개선시킨다」는 것으로 기술되어있다. 이것은 베콩이 지향하는 목적으로 그가 사망된지 36년이 되는 1662년에 영국의 「왕립학회 Royal Society」가 창립된 것이 근대학회의 시초로 된다.

1976년에 창립된 대한방사선기술학회(한방기학회 : KSRT)는 베콩이 꿈꾸는 「이상적 사회」와는 비교할 수는 없으나 「인간의 생활을 개선, 향상시키는」데 적합한 학회조직으로 해야한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방사선사를 양성하는 교원이 중심이 되어 의료방사선을 수단으로 구사하는 유일한 기술자조직으로 결집하여 설립되었으며 우여곡절 끝에 현시점에 도달하였다.

이 시점에서 새롭게 발전하기 위해서 학회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재검토하고 학회의 미래를 구상하는 바이다.

한방기학회가 당면하고 있는 기본적인 점을 논의할 때에 학회가 지향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방기학회는 의료용 방사선을 구사하는 연구자, 기술자로 구성되고 이들은 「병소가 있는 화상을 정확하게 촬상하고 그것을 정량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질병을 해명하는 수단을 추구한다.」는 것과 「방사선 스펙트럼의 제어와 계측, 해석을 통해서 목적하는 인체스펙트럼과의 대응을 강구한다.」는 것으로 본다.

전자는 방사선화상이 형성되는 물리적 과정과 그 요인을 규명하여 체계화되게 한 것으로 이에겐 생리학이나 해부학, 병리학 등의 의학적기초가 상호 연관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후자는 방사선의 질과 량의 물리학적 요소와 연구

나이 되며 주요대상이 되는 인체조직의 생물학적 요소 사이에서 상호 관련되어 교류하면서 결실을 향해서 연마되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의 학술적 목표는 급속히 발전될 것이며 이에 대비하여 지금까지의 2개의 기본적인 틀을 초월하여 보다 높은 폭과 높이로 향상되어 학술내용의 체계화가 진전되고 있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단지 학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학회 조직에서까지 파급되고 있다. 그 예로 북미의학방사선학회(RSNA)와 일본의학 학술집합진흥회(JMCP) 등을 들 수 있다. 방사선의학회와 방사선기술학회, 방사선공업협회의 3자가 공동주최의 학술집회로서 3자는 각기 독자성과 자주성을 존중하면서 공동 운영되는 획기적인 거대한 학술집회이다. RSNA는 「교육」을 모토로 하여 시카고에서, JMCP는 고베와 요코하마에서 교차로 개최되고 있다. 이것은 「학회의 중앙화」를 뜻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형태로 공동 운영되는 거대한 학술 집회로 되는 국제 추세에 따라 우리 나라의 학회도 이와 같은 형태로 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에 대비하여 한방기학회는 단순히 참가한다는 안이한 자세가 아니라 공동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회 자체를 발전시킨다는 관점에서 보다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학회의 학술계 조직과 관리계 조직, 기초계 조직, 회원의 지식레벨, 회원수 등은 새로운 문제로 도리 것이며 공동 학술 집회에서 동등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학회로 체질을 개선 향상시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급선무라 하겠다.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 (1) 거대화된 의학, 의료의 다양한 과학화 기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2) 전문영역의 보편화와 연구자, 기술자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킨다.

- (3) 경계영역을 넘어서 학술적인 상호 교류를 활성화한다.
- (4) 학술대회 준비와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여 노력을 경감시킨다.
- (5) 학술대회 준비와 운영, 재원, 재정은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 (6) 공동 경영의 원칙적인 룰을 엄수하고 각기 독자성과 자주성을 상호인지 하면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2004년부터 의료방사선 기술에 관한 학제로 4년제 과정을 졸업하는 학사과정의 방사선사가 배출될 것이며 이어서 석사, 박사과정이 개설될 것이다. 이와 같은 학제의 개혁은 인구 구조와 질병구조의 변화, 이에 따르는 의료 요구의 다양화, 의료 기술의 진보, 그 주변기술의 발전 등으로 보아 당연한 처사라 하겠다.

한방기학회는 한국에서 유일한 방사선 기술과 기술학의 연구성과를 사회에 공개하는 장으로 앞으로 학제변화의 추이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단지 방사선사가 연구 발표를 하는 장뿐만이 아니라 대학원생이 연마하는 장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상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학회는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를 고려하여 학회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대상을 명백히 하여 학회의 연구 실태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학회 조직의 기본적인 문제로서는 학술연구 발표회, 학술계 조직, 관리 조직, 기초계 조직 등으로 대별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학회의 「목적과 기능」에 합당하면 자격과 직종, 신분을 초월하여 「학술」에 관심이 있는 자는 모두 회원이 되므로 이들에게 각기 토론과 논의의장을 제공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운영은 「민주·자주·공개」를 조직원칙으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